Global Issue Report 09-005
2009. 03. 16

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러시아 CIS 지역 경제위기하 주요 트렌드 / 3

3 | 1. 러시아 CIS 지역 경제위기 현황
7 | 2. 주요국별 경기침체 현황 및 전망
13 | 3. 경제위기하 주요 변화

Ⅱ. 각국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 18

18 | 1. 경기부양책
27 | 2. 보호 무역주의 강화

Ⅲ. 러시아 CIS 지역 불황속 뜨는 상품 및 수출틈새 품목 / 32

32 | 1. 불황속 마케팅 성공 사례
35 | 2. 틈새수출 유망품목

Ⅳ. 시사점 및 진출 방안 / 40

40 | 1. 러시아 CIS 보호무역주의가 주는 시사점
42 | 2. 러시아 CIS 지역 진출 방안

요 약

지난 10년간 경제호황을 누린 러시아 CIS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주가 폭락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과다 차입에 의한 개발과 금융권 부실로 디폴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년도 러시아 CIS 경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외국 투자자금 철수 등으로 금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 국가들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독자생존의 길에 접어들어 대부분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지만 최근의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를 중심으로 현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극복 의지로 역내 위기관리 기금 창설, 관세 동맹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자금 지원 및 에너지 우호공급가격 책정을 지렛대로 삼아 CIS 지역의 영향력 회복을 꾀하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의 상당수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수립하고,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틈새시장을 찾아 공략해야 할 것이다.

1998년 러시아와 동구권이 금융위기를 겪을 때, 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했다. 하지만 우리 주요 기업들은 위축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하고 진출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러시아 CIS의 이번 위기도 기회로 삼아 오히려 진출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풍부한 자원과 3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러시아 CIS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대 러시아 CIS 수출은 2003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지역 기업들은 치솟는 유가, 넘쳐나는 외국인 투자, 경제활황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했고, 이에 따라 협상 때마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제는 이들 기업의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자금난 해결을 위한 매물도 늘어나는 만큼,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자원개발, 인수합병, 기술협력 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지역 은행들은 소비자 할부금융 축소와 외환부족으로 수입대금 결제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대금회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CIS 국가들이 자국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 반덤핑, 세이프가드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CIS지역 틈새 품목]

품목	진출 방안
자동차 부품	A/S 동반진출 및 유럽차 대비 가격 경쟁력 유지
전기/전자 제품	조립생산 위주의 현지투자
기계/플랜트류	유럽산 대비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유지
IT	급성장중인 서비스 부문 집중공략 (SI,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유지 및 보수, 데이터 처리)
의료기기	유럽산 대비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유지
식품가공 및 포장기계	한국산 제품 인식 강화 및 유통망 확보
보안장비	치안우려로 수요 증가, 유력 에이전트 선정

자료원: KOTRA KBC 종합

I. 러시아 CIS 지역 경제위기와 주요트렌드

1. 러시아 CIS 지역 경제위기 현황

□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성장 전망

○ 동유럽과 더불어 러시아 CIS 2009 경제성장률 전망치 최하

- 세계평균 0.5% 보다 낮은 -0.4% 전망

* 선진국 평균 -2.0%로 CIS 지역은 전세계에 걸쳐 최하

[지역별 2009년 경제 성장률 전망]

국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EU	동유럽	CIS	세계평균
%	5.5	3.9	3.4	-1.8	-0.4	-0.4	0.5

자료원: IMF(2009.2)

□ 경상수지 흑자 급감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

○ 러시아 CIS 하락세가 가장 뚜렷

- CIS 지역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으나 **가장 큰폭으로 하락(GDP비중 경상수지 흑자 2005년 8.8%→ 2009년 3.0%)**

* 동유럽 적자폭은 세계 최고치(2005년 -4.6%→ 2009년 -7.2%)
* EU는 매년 -0.2~-1.2%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지역별 2009년 GDP비중 경상수지 증감률 전망]

국가	CIS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EU	아시아
증감률(%p)	-5.8	-3.0	-2.6	-1.6	-1.1	1.2

자료원: IMF(2009.2)

□ 외채 증가와 높은 인플레이션

○ (GDP 대비 외채 비중) 러시아 CIS, 동유럽 다음으로 큼

- 동유럽은 50%가 넘고, 다음으로 CIS가 **32.3%**를 기록

*** 채무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 경기 침체를 가속화 시키고 있음**

[지역별 2009년 GDP대비 외채 비중 전망]

국가	동유럽	CIS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비중	52.3 %	32.3 %	20.3 %	20.1 %	15.6 %

자료원: IMF(2009.2)

○ 인플레이션은 중동에 이어 높은 수준 (12.6%)

- 전 세계 대비 2007년 말부터 10%이상 높은 수준

*** 2007년 15.6% 최고치 기록**, 2008년 12.6%로 중동 다음으로 높음

[지역별 2009년 인플레이션 전망]

국가	중동	CIS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EU	세계평균
%	14.4	12.6	8.3	6.2	5.8	2.4	4.6

자료원: IMF(2009.2)

□ 경제전망치 대폭 수정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섬

- **(2009 경제전망치 변화) CIS 각국별 하향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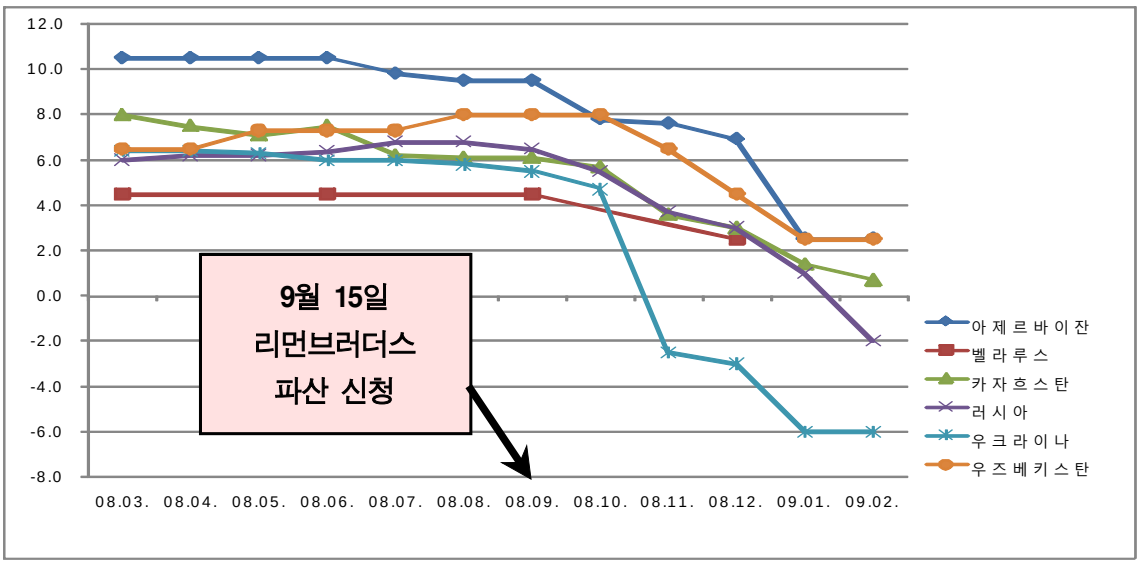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2008년 10월 2009년 전망치가 4.7%에서 11월에는 -2.5%로 급락, CIS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

[주요국 2009년 경제성장률(2009년 2월 기준)]

국가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	2.5 %	2.5 %	0.7 %	**-2.0 %**	**-6.0 %**

자료원: IMF(2009.2)

[2009년 러시아 CIS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자료: EIU)

□ 자원 부존량과 경제 개방도에 따라 위기의 정도 다름

○ 경제개방형 국가중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가 세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확대** 추세임

○ **에너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유가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개방형 경제	폐쇄형 경제
자원, 풍부한 국가	러시아(50.8), 카자흐스탄(60.1), 아제르바이잔(58.0)	투르크메니스탄(44.2)
자원,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우크라이나(48.8), 키르기스스탄(61.8), 아르메니아(69.9)	벨라루스(45.0)

* 주: 괄호안은 Economic Freedom Index 2009 (The Heritage Foundation) (0-100)구간에서 측정됨.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도 높음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금융위기 심각**

* 외환보유고대비 단기외채비율(2008) : **카자흐스탄(81%), 우크라이나(104%)**
* 우크라이나(165억 달러), 벨라루스(25억 달러) IMF 구제금융
*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세계순위 : **우크라이나(1위)** 아르헨티나(2위) 베네수엘라(3위) **카자흐스탄(4위)**

- **(CIS 주요국 신용등급 변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향조정**

  * 최근 우크라이나 S&P 신용등급 CCC+ 하락

  * **S&P, Fitch의 최근 평가 모두 'Negative' 상태**

[CIS 주요국 신용평가]

	Moody's		S&P		Fitch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카자흐스탄	Baa2	Stable	BBB-	Negative	BBB-*-	Negative
	2006-06-09	2006-06-09	2007-10-08	2008-04-29	2009-02-19	2008-11-10
러시아	Baa1	Stable	BBB	Negative	BBB	Negative
	2008-07-16	2008-12-12	2008-12-08	2008-12-08	2009-02-04	2009-02-04
우크라이나	B1*-	Stable	CCC+	Negative	B	Negative
	2009-02-24	2008-10-20	2009-02-25	2009-02-25	2009-02-12	2009-02-12

자료원: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국제금융센터

2. 주요국별 경기침체 현황 및 전망

□ 러시아

✓ 유가 하락/ 루블화 약세 지속으로 경제 전반에 성장률 감소
✓ 그루지야 사태, 우크라이나와 가스 분쟁으로 국제사회 위기 고조
✓ WTO가입 지연과 인플레 및 실업률 증가로 보호무역주의 단행
✓ CIS 역내 세력 통합을 위한 리더십 강화 노력

○ 러 주식시장, 1998년 모라토리움 이후 최대 폭락

- 2009년 1월 기준 RTS 지수 최하 기록(535.0)

* 2008.08 러-그루지야 사태로 러시아 주가 지속적 하락
* 2008.12 전년도 말 2,290.51 포인트 대비 **72.41% 급락**, 631.9 기록

- 석유, 가스, 금융, 전력 업종이 하락을 주도함

[러시아 RTS 지수 변화]

(월말기준)

	RTS 지수		RTS 지수
2008.1	1,907.0	8	1,646.1
2	2,064.9	9	1,211.8
3	2,053.9	10	773.4
4	2,122.5	11	658.1
5	2,459.9	12	631.9
6	2,303.3	2009.1	535.0
7	1,966.7	2009.3.6현재	434.7

자료원: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2009-7호, Bloomberg 종합

○ 루블화 가치 급락 속 하이퍼 인플레 재연 조짐

- 2008년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1.4%p 증가한 13.3% 기록

* **2009년 2월 현재 13.9% 기록(최고치)**
* **주요 원인 : 공공요금 인상, 국제 원자재 및 식량 가격 급등**

- 루블화 가치의 폭락, 외환보유고 감소 등 금융시장 불안 지속

* 2008년 러시아 이탈자금, 1299억 달러, 올해도 1000억 이상 이탈 예상

-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BBB+에서 BBB로 하향조정

  * 유가하락, 자본유출, 외환보유고 감소 등이 주원인

◈ 러시아의 재정 건전성

- **GDP 대비 외채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재정 건정성 높은 편**
  * **일본(217%), 이탈리아(109.4%), 미국(81.2%), 독일(76.1%), 프랑스(72.3%), 영국(61%), 러시아(6.5%)**
- 단기 외채비율도 28%로 낮은편

→ **러시아의 경제위기 상황이 다른 CIS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

○ 경제성장률 및 산업생산 성장률 급락으로 경기침체 지속 전망

- 2008년 **경제성장률 5.6%**로 2002년 4.7% 이후 **최저** 기록

  * **EIU 2009년 전망치 -2.0%**

- **산업생산은** 2008년 **2.1%**로 199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기록

  * 2008년 12월 10.3% 감소, 2009년 1월 16% 감소

  * 특히, 제조업 생산이 24.1%로 급격히 감소
    - 금속분야 : 철 금속 34.2%, 강철 파이프 34.6% 감소
    - 건축자재 : 시멘트 44.3%, 벽돌 42.7%감소
    - 자동차 : 79.7% 감소

○ 경제위기가 사회, 정치 불안으로 이어짐

- 유가 하락과 루블화 가치 폭락, 실업률 증가로 사회 불안 가중

  * 임금체불 기업은 2009년 1월 초 30만 개에서 2월초 50만 개로 늘어남
  * 규모는 46억 루블에서 69억 루블로 1개월 사이에 50% 증가

- 푸틴 총리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 푸틴 지지율 변화: 2008.09(81%)→ 2008.12(80%)→ 2009.02(74%)
    메드베데프 지지율 변화: 2008.09(79%)→ 2009.02(69%)

- 생계형 데모, 반정부 시위 증가

□ 카자흐스탄

✓ 미국발 서브프라임 여파로 2008년 말부터 GDP 급격히 하락
✓ 금융 유동성 악화 및 산업생산 저조로 경기 전반에 걸친 침체
✓ 러시아와 공동위기관리 기금 창설 및 관세동맹 추진

○ 경제성장률 급락으로 인한 경제 불안 심화

- 2006년 10.7%, 2007년 8.9%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및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2008년 3.2%로 급락

  * 2009년 EIU 전망치 0.7%로 하락 예상

-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위축으로 인해 지난 3년간 8~18% 수준에서 2008년 9.5%로 하락

  * 2009년 EIU 전망치 5.8%로 하락 예상

○ 외채증가로 인한 경제 버블 붕괴 위험

- 2008년 1월~9월 유입된 해외차입금은 전년대비 9%증가, **총외채는 동기 기준 1,054억 달러**에 이름

  * 2009년 EIU 전망치 1010억 달러로 소폭 감소 예상

- 2009년 도래될 외채 상환액은 전년 상반기말대비 **18.4%가 증가**한 20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주요 원인: 기업간 내부거래금 상환이 전년 대비 46.43% 증가

- **부동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8.7-20.4% 하락→ 내수경기위축**

-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15%로 2개월 만에 2배 이상 상승**

□ 우크라이나

√ IMF 구제금융 체제
√ 무역 적자 폭 확대와 지속적인 환율 상승으로 경제 불안 가속
√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비율 104%에 달함
√ CDS 프리미엄 세계최고치 3,700 기록

○ 2008년 10월 26일, IMF 구제금융 결정(165억 달러)

- 국가 쿼터 3배 지원 한도의 8배에 달하는 액수

- 구제금융 신청 이후부터 자국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

  * 2008년말 기준 자국통화가치 50%이상 하락, 주가지수 연초 대비 77%하락.

○ 환율급등과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한 금융 불안 가속

- 2008년 하반기부터 달러대비 환율 급상승

  *** 2009년 3월 12일 현재 1달러 = 8.3그리브나(일부 전문가 1달러=10그리브나 상회전망)**

- **S&P,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지급불능 가능성)로 하향조정**

  * 현국가채무 GDP의 9%(IMF지원금제외), 2009년내 만기도래 액수 10억달러

  * 약 850억 달러에 이르는 은행, 기업 채무로 추가 위기 가능성 상존

- **신용부도스왑(CDS) 사상 최고치 기록**

  * 2008년 9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600bp, 전년대비 3배증가

  * 2009년 2월, 세계최고 수준인 3700bp 기록

○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6년 67억 달러→ 2007년 110억 달러→ 2008년 185억 달러로 증가 추세**

  *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금속(제품), 화학 부문 국제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 수출의 감소는 산업생산으로 이어져 제조업 생산이 41.6% 감소

  * 특히, 금속 46%, 화학 49.1%, 광업 21.4% 생산 감소

  * 최대 수출품목인 철강가격이 56% 급락, 12월 산업생산이 유럽최대 수준인 26.6% 급감

○ **경제위기가 사회, 정치 불안으로 이어짐**

- 실업자 증가, 난방 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한 공급 단절, 키예프 지하철 운행 차질 등 경제 위기가 사회 불안으로 확산

- **유셴코 대통령 해임지지 여론 57%**

  * 유셴코 대통령과 티모셴코 총리 간 갈등 고조, 유셴코 대통령의 긴축재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 IMF 지원 실행 불투명→ 불안심리 확산

- 재정적자 축소 불이행으로 IMF의 2차분 구제금융 집행 거부

◈ **티모셴코 총리,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 각국의 지원 요청**

- EU 국가들이 현재 협상중인 FTA 받아들임
- 경제지원을 위한 안정화 기금 구축
- 유럽중앙은행, 유로존 미가입국에 스와프 제안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세계 각국 통화스와프 비교

□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의 정도가 덜함**
✓ **에너지 산업 편향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 다각화 노력**

○ **세계금융위기의 파급 효과가 실물경제로 점차 확산**

- 정부의 재정 부족 및 공공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생김

  * (경제성장률) **아제르바이잔** 2007년(25%), 2008년(10.8%) → 2009년(2.5%)
  우즈베키스탄 2007년(9.5%), 2008년(8.6%) → 2009년(**2.5%**) 예상

○ 포스트 오일시대 대비, 수출기업지원 및 산업다각화, 투자유치 노력

□ 벨라루스

✓ IMF 구제금융 체제
✓ 러시아 및 EU에 경제 지원 요청

○ 대외적 취약성이 드러난 경제 위기 상황

- 2009년 경제성장률 1.4%로 급락 예상

  * 2008년에는 10.5%로 2002년 이래로 평균 9%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음

- 벨라루스 경제는 75%가 국가 통제로 운영, 대외적 쇼크에 민감

  * 교역조건 개선, 수요 감소,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함

○ IMF 구제금융 지원(24억 6천만 달러)

- 벨라루스 적정 쿼터의 418.8 퍼센트에 달하는 금액 지원

- 환율 조정, 긴축재정 및 임금 정책 등 개혁 단행

  * 2010~2011까지 개혁을 통한 경제 및 경쟁력 회복 가능성 높게 전망

○ 러시아, 20억 달러 규모의 15년 만기 안정화 대출 승인

- 추가 차관 27억 7천만 달러 공급 여부 검토중

3. 경제위기하 주요 변화

□ 시장경제모델 회의감 확산 → CIS 상호의존으로 회귀 경향

○ 러시아의 양면 정책

- 워싱턴 컨센서스 붕괴로 역내 경제 지원을 통한 리더십 구축

  * 축적된 오일머니를 레버리지로 금융위기에 처한 CIS국 자금지원으로 활용

  * 군사, 외교 협력 강화

- 친서방 국가에 대한 무력사용 및 경계
  (NATO 가입을 희망하는 동유럽 국가들 vs. NATO의 동진정책)

  * 동맹국에 에너지 우호가격제시

◈ 경제위기하 EU국가들의 지원 인색
- 금융위기하 동유럽 대출금액이 서유럽 GDP의 8.7%인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러 CIS로의 차관 불투명 → CIS 역내통합의 근거로 작용

□ 러시아의 CIS 지역 리더십 강화 → 주도권 확보 움직임

○ 러-그루지야 사태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역내 세력 강화 및 미국, EU 서방 경계 움직임

- 그루지야의 전략적 중요성: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 에너지 관점에서 세계패권의 핵심 전략 요충지중 하나

  * 뉴그레이트게임 미,영 BTC 원유 파이프라인 및 가스관이 지나는 곳

○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을 통한 전유럽에 걸친 에너지 공급국의 입지 확인

-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친서방정책, 그루지아 사태 개입 의혹에 대한 갈등 고조로 인한 영향력 행사

□ 러시아의 금융지원을 통한 역내 세력 통합

○ 러시아의 키르기스스탄 금융지원

- 조건 :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미 공군기지 폐쇄

- 내용 : 20억 달러 차관, 1억 8000천만 달러 채무탕감, 1억 5000만 달러의 **무상 금융지원**

○ 러시아 VEB(대외경제정책은행), 러시아-카자흐스탄 공동 프로젝트 투자 기금에 10년간 약 30억 달러 투자

○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50억불 차관요청

- IMF의 165억 달러 구제신청 중 45억달러 지원받아도 경제난 해결 안됨, 현재 IMF 추가 지원금 집행여부 논의 중

*우크라이나 디폴트 가능성 제기

○ 러시아, 벨라루스에 차관 제공 → 루블화 통화스왑 제의

- 러시아, 벨라루스에 20억달러 차관 제공 결정→ **가스와 석유 거래시 루블화 사용하기로 합의**

*가즈프롬 : 에너지 기업들에 달러가 아닌 루블로 결제 압박**(현재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루블화 사용)**

□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주의 움직임

○ 실물경제 진흥을 위한 역내 관세동맹 추진

-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Custom Union) 금년 이내 실효 가능성 증가

*EurAsEc 및 CSTO 정상회담(2009.2.5)에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표명

○ 금융위기 공동극복 노력

- CIS 역내 위기관리기금(Crisis Management Fund) 조성

*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대통령 발표

* **100억 달러중 러시아 77억 달러, 카자흐스탄 10억 달러 조달**

- 러시아, 역내 통화 루블화로 단일화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Collective Sevurity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제의

*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적극 동의

○ 역내 경제공동체를 위한 조직

- 유라시아 특허청(The Eurasian Patent Organization) 운영

* 목표: 외국의 CIS 지역내 투자 유도, 절차 간소화 및 불편 해소

* 회원국가의 특허에 관한 어느 법에도 침해되지 않음

* 모든 조약과 서명은 러시아어로 이루어짐

* **유라시아 특허존 형성 :**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러시아, 그루지야,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 보호무역주의 대두

○ 관세, 비관세장벽 증가

- 특징: WTO가 개입하기 어려운 국내 경제정책 형식을 띰

* 러시아는 아직 WTO 미가입국이지만 국가 개입의 강도가 매우 강함
  예) 극동시베리아 지방에 수입되는 '오른쪽 운전석 차량'에 한해 수입관세 대폭 인상
  → 일본산 자동차 수입을 견제, 자국 자동차업체 보호의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관세 인상 및 수입규제 단행

* **러시아 : 자동차, 철강제품 등 8개 품목 수입관세 인상**
* **우크라이나 : 자동차, 가전 등 관세 13% 추가 인상**
* 수입 규제조치의 형태도 WTO가 허용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들에 한정됨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및 품목]

제소 년도	품목명	제소근거	조사결과		09년 1월 현재
			조사 종결	조사중	
우크라이나					
2005	연마공구	긴급수입제한			규제중
2006	형광램프	반덤핑		O	조사개시(06.9)
	볼베어링	긴급수입제한			규제중
2007	냉장고	반덤핑	무혐의		
	PVC 문 창문	반덤핑			조사종료
	무계목강관	긴급수입제한			규제중
	방전램프	긴급수입제한			규제중
	면지기물	긴급수입제한			규제중
	니트직물	긴급수입제한			규제중
2008	파일편물	반덤핑		O	조사중(5.29)
러시아					
2005	Big-diamester Pipes	세이프가드(06.12발효)			규제중
	시화나트륨(NaCn)	세이프가드			조사종료(06.8)
2006	유리섬유	세이프가드			규제중
2007	스테인레스 강관	세이프가드			조사중
2008	평판압연	반덤핑			조사중
	식탁용 식기류	세이프가드			조사중

○ **향후 전망**

- 산업 정책 지원 보조금으로 **상계관세 증가** 전망

- 제소 후 실제 규제까지 소요시간이 짧고, 규제대상도 포괄적인 **세이프가드 선호 예상**

□ 수요위축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위축은 수출 및 기업 진출의 애로사항이 됨

- 2008년 10월 12.4%,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강 추세

  * 11월(8%), 12월(4.8%), 2009년 1월(2.4%)

○ **2009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들의 자금 집행 연기 및 삭감**

- 일부 자금책정이 2009년에서 2010~2011년으로 연기

- **2009년 1/4분기내에 신규 프로젝트 승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

[러시아 투자 프로젝트 지연 사례]

- **2009년 정부 투자 프로그램(인프라 건설) 규모**
  38억 달러(29건)→21억 달러(15건)로 축소
  *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예산 15% 축소
  * 러시아 철도공사 2009년 투자 예산 약 10% 감축(약 18억 달러)
  * 마그니토고르스키 메트콤비나트(폴리메탈, 철광석 대기업) 2009년 투자 약 20억 달러 축소

- 투자시기 연기
  * 상트페테르부르크-헬싱키 간 고속철도 건설 2010으로 연기
  * 이를롭 지역 터널공사 2011년으로 연기
  * 크라스노다르-아빈스크-카바르딘카 도로 건설 예산 및 수도시스템 건설 예산 책정 연기

II. 각국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1. 경기부양책

□ 개요

○ 금융위기 극복 및 실물경제 부양 대책

○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전략 산업 보호정책

[주요국 경제위기 타개책 개요]

국가	정책 주요 요지	지원 액수
러시아	금융지원, 국가기반산업 및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3,400억 달러
카자흐스탄	금융안정에 중점	100억 달러
우크라이나	금융안정 및 무역수지 개선	IMF 구제금융
우즈베키스탄	실물경제 진흥 및 신성장 산업 육성	3억 5천 달러
아제르바이잔	탈석유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 러시아

○ 경기 부양 지원 액수

- 위기 극복을 위해 총 10조 루블(약 3,400억 달러) 책정

  * 예산은 연방 정부 예산, 중앙은행, 적립준비금 등에서 마련

- 현재까지 총 3,260억 루블(약 93억 달러)이 투입

[러시아 경기부양 규모 (산업분야)]

금액	지원 분야
700억 루블(20억 달러)	농업 및 기계 산업 국영기업 금융 지원 - 신규사업, 기계도입 지원 등 목적
500억 루블(14.3억 달러)	방산업체 지원
390억 루블(11.1억 달러)	자동차 산업 지원
181억 루블(5.2억 달러)	농업분야 금융지원 - 금융이자 부담 경감 목적
320억 루블(9.1억 달러)	항공산업 지원
62억 루블(1.8억 달러)	중소기업 지원 - 지자체 단위 지원금 제외
60억 루블(1.7억 달러)	공산품 수출지원

* 주: 적용환율 US $1=35루블 기준 (2009.2월 현재)

- 금융위기 후 은행 등 금융권 지원 목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현재까지 약 2,000억 달러에 달함.

* 러시아 외환보유고 현황 : 2009년 2월: 3,866억불, 금융위기 전(2008년 8월): 5,975억불

○ **금융위기 타개 대책**

부문	주요 내용
금융	환율안정 및 금융시스템 개혁 - 환율안정과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확보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11%→13%) - 환투기 감소를 위해 중앙은행의 유동성 상품 이자율 인상 - 일부 저당 대출조건 완화(중앙은행, 1조 5천억 루블까지 시중은행에 지원가능. 실제 3,500억 루블 배정) - 은행자본확충 위해 9,500억루블 후순위 대출: 스베르방크(5천억루블), VEB(2천억루블), 농업은행(250억루블), 기타은행(2,250억루블) - 은행예금보장한도 인상(40만→70만 루블) - 금융시장지원 및 적대적 인수합병로부터 러시아 기업 보호를 위해 시가의 5%이상 변동시 거래 정지관련 엄격한 규정 도입

○ **경기부양 대책**

부문	주요 내용
재정정책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 부가세 환급시기 단축 및 채무 청산 법규정 완화 - 기업소득세율 감소(24%→20%) - 사회, 경제적으로 주요한 약 300개 기업 리스트 선정하여 대출 금리 인하, 정부보증 지원에 920억 루블 배정 - 철도운송비용 연평균 인상률 12.4%미만, 2009년 1월부터 운임은 5% 인상 계획 - 가스사용비 연평균 인상률 16.3%이내, 1월부터 5% 인상 계획
내수진작	국산품 우선구매와 수입관세 인상 - 국산품 우선구매, 정부구매시 국산품 5-25% 우대가격 - 국영, 독점기업의 투자계획 수립 및 수출기업 보조금 확대 - 수입관세제도 정비(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별적 관세보호조치) - 법인세 인하(24%→20%)
고용안정	- 고용활성화를 위해 500억 루블 책정(구직지원, 직업훈련 등) - 실업수당 인상(3,124→4,900루블) - 월 최소 급여액을 2,300루블→ 4,330 루블로 인상(2009.1.1) - 외국인 인력 고용 쿼터 축소
주택시장	- 600억 루블 책정. 모기지론 지속 시행 예정 - 830억 루블, 2008-2009년 약 4만여채의 아파트 공급에 책정됨 - 국민주택 프로그램 시행, 2009년도 담보부 주택 융자 확대
중소기업	- 대외경제은행, 중소기업 신용지원 300억 루블까지 증가 - 중소기업 창업지원금 105억 루블 책정 - 지역 및 지자체의 발주를 중소기업이 수주토록 지원(지역시장 진입제한을 포함한 기업 활동의 행정장벽 제거) - 중소기업 부과 지방세를 기존 15%→ 5%까지 경감

○ **산업별 지원정책 :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

- **금융지원 대상 주요 전략기업 선정 (26산업 295개 기업)**

- 기업 운영 자금 및 정부 지급 보증, **세금 재조정** 등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이뤄질 전망

* 러 중앙은행 **약 1,000억 달러 유동성 자금 지원**

· 대외경제개발은행(VEB) (670억달러), 저축은행(Sberbank) (185억달러), 대외무역은행(VTB) (75억달러)등

* 경매방식으로 중소은행에 무담보로 **약 660억 달러**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

- 건설(6개사), 식품(33개사), 자동차제조(14개사), 금속(32개사), 운송(30개사), 에너지(36개사), 석유가스(10개사), 통신미디어(18개사)

부문	주요내용
석유	현재 수준의 석유생산 유지 목표 - 광물채굴세의 면세 기준 인상(배럴당 9→15 달러) - 석유수출세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기간을 1개월로 단축 - 석유부문 생산고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 특정산업지원 목적) - 관세 금액 인하(496→192달러/톤, 2009.01.01부터 119달러) - 석유부문의 이윤세 감소로 2009년도 정부의 이윤세 수입이 2,500억 루블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자국 산업 보호 정책 - 자동차 기술 도입 및 구매를 위한 재정 지원(125억 루블) - "운송시스템현대화" 자금 경감을 위해 도로 설비 구매는 400억 루블까지 지원 계획 - 시의 주차시설 재건축관련 정부 프로그램 현실화(연방예산 200억 루블, 지역예산 100억 루블) - 농업용 자동설비 리스구매에 50억 루블 책정(로스아그로리싱) - 리스 회사에 430억 루블까지 크레디트 라인 설정(자동차 장비의 리스제도 이용) - 정부보증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기업들에게 700억 루블까지 신용 제공(600억 루블 규모의 인프라 채권 배정) - 러시아 생산 및 대량 주문 차량 구매시 할부 이자율 경감 - 신차의 한시적 관세인상. 중고차는 점진적 관세 인상 - 유럽 자동차의 극동 및 동시베리아 운반시 철도 운임 인하(제로)
농업	- 2008~2012 농업 발전 연방 프로그램 융자제공 - 농업체의 단기 부채 및 투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 - 가금류 및 돼지고기 수입쿼터 축소 <농기계산업> - '로스아그로리싱'의 정관자본에 250억 루블 배정 - 기술 장비 구매시 이자율 보조 - 외국산 농기계 수입에 대한 임시 관세 도입(15%)

부문	주요내용
농산복합체	- 축산복합체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지원 - '러시아 농업은행'의 자본금 2배 증가됨(450억 루블) - 사료, 비료 구매비용 보전에 280억 루블 배정 - '러시아 농업리스'사의 자본금 250억 루블로 조정 - 장비수령후 1년후부터 리스대금 납부 - 리스기간 증대(10년→ 15년) - 가금류, 돼지고기에 대한 신규 쿼터 적용(쿼터 외 수입분에 대한 관세 인상)
항공	- 300억 루블까지 민간 항공사에 신용제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 주요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지속적 시행지원(장기화 방지) - 대규모 시설 건축시 러시아 연방 또는 대외 경제은행의 보증을 포함한 인프라 채권 발행이 허가됨

□ 카자흐스탄

○ 경제위기대책 프로그램의 구체 수행 계획 발표

- National Fund(오일기금)에서 **약 100억달러**를 조성, 2009-2011년간 **국가 경기진작 및 대책 기금**으로 활용

***금융분야와 사회 기반시설 확보 및 육성에 집중**

[카자흐스탄 산업별 지원 규모(예정)]

부문	금액(억 달러)
금융	40
공공(주택, 건설)	30
중소기업	10
농업	10
기타(사회인프라구축)	10
총계	100

- 2009년 3월 6일, 40억달러 추가 발표, 건설, 중소기업육성, 농업 부문 투입 예정

○ **부문별 지원정책**

부문	주요내용
금융	**부실 시중은행 구제 및 증자계획** - 2월말까지 카자흐스탄 4대은행(BTA, Halyk Bank, Kazkommerts Bank, Alliance Bank)에 10억 달러 단기예금 또는 전환채로 투입 - 중앙은행, 은행 재할인율을 10%→ 9.5%로 인하, 최소지준율(MRR) 2%→ 1.5%로(국내부채), 3%→ 2%로(기타 부채) 인하
사회기반 시설확보	**세법 개정(사회복지, 무역투자 환경 개선)** - 2009년 1월부터 법인소득세 30%→ 20%, 부가가치세 13%→ 12%로 인하. - 2009년 1월부터 자선 및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과 의료 관련품(의약제품, 의료기기 등)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 2009년 1월말, 광물 채굴세(MET:Mineral Extraction Tax) 인하 * 2009년 세제수입이 약 2억800만 달러 감소예상

□ 우크라이나

○ **경기부양 지원 액수**

- 우크라이나는 현재 **IMF 구제금융** 받고 있는 상태**(165억 달러)**

*45억 달러가 먼저 지원

*재정적자 감축 목표 불이행으로 120억 달러 아직 지원 받지 못함

○ **금융 지원 정책**

- 우크라이나 경제 위기는 자금 부족 문제 → **금융안정**에 집중

부문	주요내용
금융	**외환보유고 확충, 환율 안정화, 정부 흑자예산 편성** - 은행대출 확대 금지 및 은행 자산규모 제한 조치 - 시중은행의 달러매도 환율, 중앙은행 공시환율의 1.5%초과 금지 및 달러 매수, 매도 가격의 3%이하 금지 규정 발표 - 2008년 12월 5일부터 자국통화 지급준비율 폐지, 외환예금의 지급준비율은 통지예금과 요구불예금 모두 5%→ 4%로 인하 - **IMF 안정화 기금을 통해 은행 및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인프라, 투자, 혁신 프로젝트 자금지원,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지원, 국내 제조업체 및 은행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

부문	주요내용
금융	- IMF 구제금융 승인으로 이행해야할 대책으로, * 국가 자산 매각 및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취득한 수입을 안정화 기금으로 운용 * 정부의 은행 지분 매입을 통한 자본 지원 * 부채 비중 및 유동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은행을 상대로 구조조정 실시 * 2009년부터 농업, 어업, 임업, 부문에 대한 특별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적용 (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불이행으로 IMF 구제금융 2차분 120억 달러 집행거부 상태)

□ 우즈베키스탄

○ 2009년 실물경제 부양 예산 : 4,900억숨 (약 3억 5천달러)

- 대상 분야 : 수출기업, 중소기업지원 및 기간산업 시설 현대화, 국산화 프로그램, 나보이 공항개발 등 국책 프로젝트

○ 실물경제 진흥책(2008.11.28)

부문	주요내용
수출기업 지원	- 생산비용 최소 20% 절감(가격경쟁력제고) * 생산공정 합리화, 에너지 및 원자재 절감, 잉여인력 감축 - 가격상승률 6~8%억제 **- 수출기업 자금지원 확대** * 자동차 산업: 회전신용장 개설 * 면방업체: 원면구입시 상업은행 지불보증기간 90일→ 120일 **- 수출기업 예산지원** * 체납금 조정 및 연체료 면제 * 의류완제품 생산 외국인 투자자 조제감면 2012년까지 연장 * 면직물 원료 및 부품수입 관세면제 2012년까지 연장 **- 수출능력제고** * 나보이 공항 물류허브 육성(대한항공) 및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 조성 *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e-commerce 포탈개설

부문	주요내용
내수진작	**- 국산 제품 생산 및 매출 확대** * 기계, 에너지, 금속, 전기 경공업, 식품, 건축자재 생산 중심으로 국내산 제품생산을 3-4배 증대시킴 * 정부조달 경쟁입찰시 국내기업 최대 20% 가격혜택부여 **- 교통 인프라 개발** * 국가재건 개발펀드, 국제금융기관 등의 장기차관 등을 재원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보수 * 지방정부예산 및 중앙정부 도로기금, 지방 주요도로 보수 * 2009~2012년 철도교통시설 현대화 및 재설비 프로그램 시행 **- 주택건설 확대, 재건축 및 보수 전문업체 육성** * 주택 재건축, 보수 전문기업 설립시 5년간 주요세금 면제 * 건축허가 등에 원스톱시스템 도입, 절차 간소화 - 식품생산 증대 위해 유통전문기업을 지역주지사 관할하 육성
우대 대출 확대	- 대형은행의 자본금 확충, 수출기업과 투자 프로젝트 수행기업에 우대대출 * 기술 현대화를 위한 장비도입(벤츠버스 300대, 승압기 건설)
전력생산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	- 2009~20013 전력 생산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 2009년중 대규모 산업체에 대한 효율적 에너지소비 표준 마련, 기기 및 장비 교체 * 자동화된 전기 계량기 도입

○ **탈석유화를 위한 산업정책**

부문	주요내용
신재생 에너지 정책	**-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산업 다각화 추진** * UNDP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 가능 잠재력은 510억 TOE에 달함. * 특히 태양에너지는 가장 유망한 분야로, 기술적 생산 가능량이 1.76억 TOE * 아직 개발 수준은 미미함. 시범사업 수준. - 2005~2010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정부 프로그램 시행 * 전체 에너지 생산의 2.5% 증대 계획(2005-2010)
국산화 장려 제도	**-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 육성** * 자동차 산업, 농업기계생산, 가전제품생산에서 국산화 비율 높은 기업이 부품, 기술 수입시 면세혜택 부여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 장려

□ 아제르바이잔

○ 부문별 지원정책

- 글로벌 경제위기 파급 영향이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미약하며, 금융 유동성 확보 및 산업 다각화에 주력

부문	주요내용
금융	**유동성 확대** - 재할인율을 15%→ 8%로 인하, 시중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9%→ 6%로 인하
산업	**- '중소기업지원기금' (National Enterprise Support Fund: NESF) 조성** * 2008년 12월 1차로 약 4,500만 달러를 배정, 금년 9,900만 달러 추가 기금 조성 예정. * 2010년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2%p, 1%p 인하 **- 산업 다변화 및 자국 산업 보호 정책** * IT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기술혁신구역 창설 *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 국가 계획 * 행정신도시 소프트웨어 (한국토지공사)

2. 보호 무역주의 강화

가. 러시아

□ 관세

○ **자동차 관세 인상 (2008.12.9)**

- **2009년 1월 9일부로 9개월간 2배 수준 인상**

  * **중고차 기준 7년→ 5년으로 단축** (2009.3.4 중고 특수차량에 1㎤당 4.4유로 관세부과 확정)
  * 자국 자동차 메이커들에 9,000km에 달하는 **내륙운송비 보조**

- **일본차주도 시장구조 변화 예상(연간 30만대 이상 반입, 90%이상 점유)**

- 3월 4일부로 **특수차량 수입관세 9개월 한시적 인상** 결정

  * 신차 관세 인상률은 기중기차(10%), 소방차(15%), 콘크리트 믹서차(25%), 구난차(15%) 등으로 **5-25% 수준**
  * 중고차는 모두 4.4유로/1㎤로 동일

○ **철강제품 수입관세 인상 (2009.1.9)**

- **일부 철강제품 수입관세가 5%→ 15%로 인상**

  * 대상: 철/ 합금강의 봉, 철근, 철/비합금강의 형강, 스테인레스 압연강판

○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입관세 인상 및 쿼터 조정 (2008.12.12)**

- **가금류 수입쿼터 30만 톤으로 축소**

-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수입관세 기존 60%→ 95% 인상**

  * 돼지고기, 쿼터 532천 톤 소폭 증가,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수입관세는 기존 60%→ 75%로 인상

[수입관세 인상 품목]

분야	현행(%)	인상 내역(%)	시행시기	비고
수입자동차 (신차)	25	30	2009.1.12	자동차산업에 4.7억 달러 지원
수입자동차 (중고차)	25	35	2009.1.12	
일부 강관 및 철강제품	5	15	2009.2.9	9개월 한시적 시행
가금류	60	최대 95% 또는 최소 0.8유로/kg	2009.1.1	
돼지고기	60	최대 75% 또는 최소 1.5유로/kg	2009.1.1	
일부 유제품 및 크림 (HS Code 0402)	15	20	2009.2.28	9개월 한시적 시행 [유제품 약 102개 종류제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식품안정성 강화조치 실시]
버터	0.22유로/kg	0.35유로/kg	2009.2.28	9개월 한시적 시행
쌀	0.07유로/kg	0.23유로/kg	2009.2.15	1개월 한시적 시행
콤바인 (HS Code 8433)	5%, 70유로/kw	15%, 120유로/kw	2009.2.14	

○ **LCD TV 수입관세 인상 (예정)**

- **LCD TV 수입관세 10%에서 15%로 인상** 예정

  * 러시아 무역보호관세정책위원회, LCD TV 관세 인상안 제출(2009.02.12)

- 원인 : **러시아산 시장 점유율은 37%불과**

  * 러시아 Baltmikst사 :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부품 조립생산 (2009년 초 가동중단)
  * 러시아 Telebalt사 : 히타치, 현대, JVC 부품 조립생산(가동 중단 예정)

- 조립생산용 부분품 관세철폐가 이어져야한다는 주장 대두

□ 비관세

○ 수출세 인하 및 폐지

- 수출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금속 산업 종사자 고용 유지

[수출세 인하 및 폐지 품목]

분야	현행 수출세	변동 내역	시행시기	비고
구리	5%	폐지	2009.2.21	구리,니켈 관련업계에 약 3억달러의 자금지원 효과 예상
니켈	10%	폐지	2009.2.21	
원유	$119.1/톤	인하 $100.9/톤	2009.2.1	매달 조정 예정
경질유, 중질유, 가스오일, 벤젠, 톨루엔, 크실렌	$92.6/톤	인하 $80.3/톤	2009.2.1	
액체연료, 석유가공제품, 바셀린, 광물성왁스	$49.9/톤	인하 $43.2/톤	2009.2.1	

○ 외국인 고용 쿼터 조정 가능성 증가

- 실업률 증가로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으로 선회

* 2008년 외국인력 고용 노동비자 발급쿼터 : 297만 명 (전년대비 1.2배 증가)
* 과거 CIS출신 노동자 인종 혐오범죄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대상화

- 국책사업에 자국인력 사용 선호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준비사업에 외국 인력 대신 자국 실업자를 고용

<참고> 상용비자 신청시 추가 경비 및 추가 수수료 징수

- 1992.3월 체결한 <한 러간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상용목적으로 잦은 방문시 2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우호적 고려 규정
- 그러나 현재 러시아 외무부 인증 의무화와 사증 발급 수수료외 추가 수수료 징수하는 등 이중부담

나. 우크라이나

□ 관세

○ 기존 수입관세율이 WTO 가입(2008.5.16) 후 평균 5.0%로 감소(농산물 10.66%, 비농산물 4.95%)

-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수입관세 인상 조치를 취함**

  * 자동차(완성차) : 6개월간 한시적으로 10%에서 25%로 증가
  * 육류 12%, 의류 10%

○ **수입관세 13% 인상(2009.2.20)**

-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6개월간 13% 추과 관세 인상**

  * **유력 산업 분야의 수입규제를 통한 경상수지 불균형 개선**
  * WTO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각에 추가관세 부과 취소 권한 부여함으로써 불공정무역 문제제기 가능성 사전고려

- **수입관세 인상 주요 품목**

  * 돼지고기 및 가금류, 와인, 석탄, 카펫, 냉장고, 자동차, 버스, 트럭, 과일 및 견과류, 설탕, 모피, 철강 및 철금속, 엔진, 발전기 등

□ 비관세

○ **품질인증 획득상 어려움**

- 품질 인증서 : 단수용(1회), 복수용(1-3년간), 취득을 위해 발급 수수료 외 검사원의 출장 비용(항공임, 숙식비)까지 부담해야 함(1,000달러 이상 예상)

  * **강제인증 대상 품목** : 의약품, 화장품, 식품, 담배, 주류,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전기 전자 제품, 전기작동 공산품 등 39개 분야 700여개

○ **부가세와 소비세의 외국인 차별**

- 부가세(20%), 외국기업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음

- 소비세(5%~100%), 담배, 알코올음료 및 에틸알코올, 석유관련 제품, 중대형 자동차 등 4개 부분의 수입상품은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비해 차별 부과

다. 우즈베키스탄

□ 비관세장벽

○ **기존 외국기업 차별 정책으로 환전통제 심화**

- **환전가능품목**: 밀가루, 버터, 약품, 직물, 냉동고, 자동차 부품
- **환전제한품목**: 식료품, 통조림, 담배, TV, 세탁기, 고급가구, 합성신발
- **환전금지제한품목**: 맥주, 쥬스, 유리그릇, 승용차, 카펫, 폴리에스터 직물 및 CD, 실크, 자동차 악세사리 등

○ **외국기업 차별 및 국내 기업 보호 조치 강화**

- 정부조달 경쟁입찰시 국내기업에 최대 20% 가격혜택 부여
- **환전통제 심화**

* 제조업체의 원료, 부품수입시 2개월, 소비재 4-5개월의 환전기간이 모든 제품에 대해 **5개월 이상**으로 늘어남

* **기업 선별적 환전 허용**으로 코카콜라, 네슬레 등은 1개월 이내 환전

III. 러시아CIS 지역 불황속 뜨는 상품 및 수출틈새 품목

1. 불황속 마케팅 성공 사례

□ 불황기 식품 유통망 확대 (러시아)

✓ 성공포인트 : 불황기 역발상으로 유통망 확대 및 신규 투자 증대

○ **OKTRYABRSKAYA사, 유통망 확대 전략**

- 시베리아 지역에 **자사 브랜드의 독립 체인망** 구축

*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상환이 지연되자 자사제품 직영체제 강화(역이용)
* 불황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직영 유통망 확충 기회

○ **KUDRYASHOVSKIY사, 신규투자 확대로 유통망 확보**

- 노보시비르스크주 내 **최대 규모의 새로운 육류 가공공장** 설립

* 월 생산량 1,500톤 →4,500톤으로 확대 목표
* 신규 공장 설립 위해 약 13억 5,000만 루블 투자
* 2011년까지 약 52억 3,000만 루블 추가 투자, 생산확대 계획

- **러시아 전역에 유통망 보유**

* 대표적인 대형 할인매장인 AUCHAN, METRO, LENTA 보유
* 다양한 가격대의 육류 가공생산으로 소비자 수요 만족

육가공 제품과 대형할인 매장

□ 성능향상된 저가 국산대중차로 승부, AUTOBAZ사 (러시아)

√ 성공포인트 : 수입관세인상 및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호기 활용

○ 가격경쟁력을 통한 내수시장 확보

- 국내 브랜드인 LADA ZHUGULI, 러시아 최다 판매 모델

* 수입 자동차 점유율 약 72% 속에서도 국내 브랜드 인식 제고
* **수입차량 관세인상**으로 러시아 국산 자동차 생산업체 및 러시아 내 생산 라인을 보유한 외국 브랜드 제품의 판매 호조 예상

- 불경기하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겨냥, 품질대비 낮은 가격 모델 출시로 수입차보다 우위 확보

*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 이전인 2008년 말에 수입된 중고차량 판매가 2009년 초에 반짝 확대 전망
* 2009년 2/4분기 이후부터 LADA ZHUGUL의 판매량이 증가, 연간 판매량이 약 38%-45%로 증가 예상

□ 유통업체의 트렌드 포착, ELDORAD사 (러시아)

√ 성공포인트 : 우수한 저가제품 선별 및 판매

○ 구매가격대 조정으로 소비자 수요 충족

- 구매가격대 대폭 하향조정으로 저가제품 판매수요 증가에 대비

* 가전제품 판매가 전년대비 약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요원인 : 금융권 신용대출 시스템을 활용했던 고가품 수요자의 수요감소

- 러시아 전역에 약 55개의 **신규 유통망 확충 (5,000만 달러 추가 투자)**

* 시베리아 지역 전체 가전제품 판매의 약 40~50%점유 (러시아전체 약 30%)
* 유통망 확대를 바탕으로 우수한 저가제품을 선별, 판매하여 불황기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수요 충족에 노력

□ 무선인터넷 타겟 고객 재설정, 한국 KT사 (우즈베키스탄)

✓ 성공포인트 : 외국 기업으로서 신기술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신기술 도입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최초로 Mobile WiMax 기술도입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 구매매력도 상승

  * 현지브랜드명: EVO
  * 인터넷설치 3일이내, 고장신고처리 2일이내(경쟁기업 인터넷설치, 통상 3주 소요)

- **기업을 중점 타켓 고객**으로 설정, 불황에도 고객수요 증가

  * 2008.10월 서비스개시후 2009.2월 현재 가입자수 2,000명중 60% 기업고객
  * 1개 기업당 평균 인터넷 사용료 : 월 $1000, 개인 : $100이내
  * 2009년 목표 : 가입자수 1만명, 매출액 600만달러

KT의 EVO 마케팅

2. 틈새수출 유망품목 [KOTRA KBC 선정]

□ 틈새 품목 선정 포인트

○ **관세인상으로 수출 감소 예상 품목 선별적 활용**

- 중고차 수입관세 인상으로 자동차 부품수요 증가 전망
  → 부품 및 A/S 동반 진출 방안 모색

○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생산 증대에 필요한 제품**

- 기계, 플랜트류, IT 관련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품목 선정

○ **불경기 특성을 활용한 제품**

- 보안장비, 금고등 불경기하 수요증가 예상 품목 선정

○ **CIS 특성상 노후 장비 및 시설 교체에 필요한 품목**

- 의료기기 등 유럽산 대비 가격, 품질 경쟁력을 갖춘 품목 공략

[틈새수출 유망 품목]

품목	진출 방안
자동차 부품	A/S 동반진출 및 유럽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유지
전기/전자 제품	조립생산 위주의 현지투자
기계/플랜트류	유럽산 대비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유지
IT	급성장중인 서비스 부문 집중공략 (SI,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유지 및 보수, 데이터 처리)
의료기기	유럽산 대비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유지
식품가공 및 포장기계	한국산 제품 인식 강화 및 유통망 확보
보안장비	치안우려로 수요 증가, 유력 에이전트 성정

□ 자동차 부품

√ 선정이유 : 러시아 수입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기존 자동차에 대한 부품 수요 증가 예상

○ 한국산 자동차 부품 인식 제고

- 2007년 주요 수입대상국 **한국 1위**, 독일 2위, 일본3위 (한국, 독일, 일본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이 치열함)

  * 신차 생산관련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약 53.5%를 차지

- 한국산제품 현지 평가: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 우수**

  * 중고차 현지 50%이상 점유, 좌측 핸들의 한국 중고차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는 상황

○ 틈새 공략 포인트

- 한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 가격** 유지 및 **유통망**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현지 자동차 및 부품회사들은 가격인하 및 생산·수입 규모 축소 추세
  * 극동러시아에 일본산 우측핸들 차량이 30만 대 들어오고 있으나, 최근의 금융위기와 엔고 지속, 자동차 관세인상으로 수입 급감

- **기존 자동차에 대한 부품 및 A/S 수요 증가에 부응**

  * 자동차 부품 뿐만 아니라 신차, 중고차에 대한 고품질 A/S로 소비자 구매 만족도 상승 효과 이끔

□ 의료장비 (심전계, 초음파영상진단기, 자기공명촬영기기, 디지털 청진기)

√ 선정이유 : 오래된 장비 교체 및 꾸준한 수요증가

○ 정부 차원 의료분야 지원 증대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 **카자흐스탄** 정부, 전GDP의 2.6%를 차지하는 의료부분 예산을 오래된 **의료기기 교체에 지출**할 것이라 발표

  * 카자흐스탄 국영병원 의료기기 80%이상이 교체가 필요
  * 카자흐스탄 정부, 2005-2012년 의료부분 개발 및 재구축 프로그램 추진중

- **러시아** 주요 도시 및 지방 도시에 **최신 의료시설확대**로 오래된 장비 교체 수요 증가

○ **틈새 공략 포인트**

-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 러시아 주요 수입 대상국: 독일(25%), 일본(19%), 미국(18%) 한국(0.4%)
* 카자흐스탄 주요 수입 대상국: 독일(35%), 미국(10%), 일본(8%), 러시아(5%), 한국(1.5%)
* **한국산 제품은 유럽이나 일본 제품에 비해 저렴하고 중국산보다는 월등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점차 확산중**

- **경쟁력**있는 제품 집중 공략

* 한국산 심전계나 혈압측정기 등이 질적 경쟁력이 높은 편임
* 아큐퓨저(1회용 약물주입조절기) 등 일부 의료장비, 러시아내 생산기업 부재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 → 선점우위 전략

- **유통망 확보 및 A/S 제공 확대**

* 러시아: 주요 유통업자 발굴로 판매망 설립 및 제품등록, 광고비 공동 부담
* 카자흐스탄: 정부발주 입찰 참여 가능한 유력 에이젼트 선별로 진입 시기 단축 가능

심전계

혈압 측정기

□ 보안관련 제품 (CCTV, 가정용 금고)

√ 선정이유 : 경기 위축과 사회불안에 따른 범죄율 증가, 보안인식 증대로 수요 증가 예상

○ CCTV

- **최근 3년간 수요 연 20~30% 증가 추세**

  * 은행, 정부기관, 상업용 건물 등 CCTV 설치율 5%로 잠재성장률 매우 높음

- **틈새 공략 포인트**

  * **주요 에이전트 선정** : 보안장비 주요 판매 및 설치 업체를 통해 정부기관 등 대형 발주처 입찰참가 및 실수요자 발굴
  * 보완관련전시회(CAIPS2009, 우즈베키스탄) 참가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 가정용 금고 (우크라이나)

-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분야 금고시장 감소추세

  * 우크라이나 최대 금고 수요자는 대도시에 지점을 확장하는 은행으로 2007, 2008년 총 금고 수요의 70%를 차지

- 은행에 대한 불신 증가로 **가정용 개인금고 수요 증대 전망**

  * 가정용 금고 잠재시장, 2007년 15%→ 2008년 20%로 증가, **2009년 50%로 증가 예상**

- **틈새 공략 포인트**

  * 금고 제조판매사인 루카세이피社 알렉세이 대표, **내화성 강화 금고** 등에서 **한국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으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 가격 및 최소 주문량, A/S와 보증기간 등에서 유연성 접근 필요

□ 포장기계

√ 선정이유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 산업의 국내생산 기회 증가

○ 러시아 식품산업 성장 가능성 증대

- 러시아 식품산업 평균 수입 의존도 : 약 30%

  * 특히, 육류, 유제품, 설탕, 알콜 음료 등의 수입 의존도 높음

- 최근 **러시아내 생산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달러화 대비 루블화 가치가 약 40% 하락함에 따라 기존에 수입되던 식품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 수입품 가격인상으로 인한 현지생산 증가 기회

  * **식품 포장용 제품생산 기계 수요 증가 추세**
  * 러시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PE packaging line, Extrusion line 등의 포장기계를 판매하는 한국기업 정보 문의 증가

○ 틈새 공략 포인트

- 한국산 제품 인식 강화 및 에이젼트 발굴을 통한 시장 확보 전략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식품포장 설비

PE packaging line

Extrusion line

IV. 시사점 및 진출 방안

1. 러시아 CIS 보호무역주의가 주는 시사점

□ 수출 환경 변화

○ **보호무역과 지역주의 확산 → 위협요인**

- 무역가중 평균관세율, 무역실질 성장률등 무역관련 지표, 하락 예상

  *2009년 기업하기 좋은 순위 러시아 전년대비 8순위 하락

○ **예) 극동 시베리아 지방에 수입되는 '오른쪽 운전석 차량'에 한해 수입관세 대폭 인상→ 일본산 자동차 수입 견제 및 자국 자동차업체 보호의도**

*** 러시아, 2009년 들어 자동차 수입 70%이상 급감, 특히 극동지역 자동차 수입 90% 급감한 상태 →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 상당한 타격 예상**

[러시아 CIS 주요 무역관련 지표]

	무역가중 평균관세율	기업하기 좋은 순위	물류성과 지수	무역 실질 성장률	수출품목 집중도
국가/연도	2007	2009	2007	2007	2006
아르메니아	3.5	44	2.14	14.1	28.6
아제르바이잔	3.6	33	2.29	11.8	28.6
카자흐스탄	6.1	70	2.12	9.4	60.0
키르기스스탄	1.3	68	2.35	4.9	27.5
타지키스탄	3.6	159	1.93	0.6	76.9
우즈베키스탄	6.7	138	2.16	7.0	26.8
러시아	10.4	120	2.37	11.2	34.7
우크라이나		145	2.55	8.1	14.3
벨라루스	8.5	85	2.53	7.3	31.3
러시아CIS 평균	5.0	88	2.27	8.4	34.5

자료원 : 세계은행, "World Trade Indicator 2008", "Doing Business 2009", "LPI and Its Indicators, 2007

□ 관세 장벽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세인상으로 수출타격 예상

- **자동차 및 가전제품, 섬유, 기계, 철강 등 수출주력 품목 타격예상**

  * 수출 감소를 대비한 현지 생산체제 구축 및 틈새품목 진출 전략 수립 요구

-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의 규제 우려**

  * **러시아**, 현재 총 5건(철강3, 화학1, 기타1건중 세이프가드4건, 반덤핑1건)
  * **우크라이나**, 현재 총 6건(철강1, 섬유2, 기타3중 세이프가드5건, 반덤핑1건)

- **자국산업 보호, 자국 상품 우선 구매** 등으로 투자애로 발생

  * 제조업, 인프라 기반확보를 위한 틈새진출 및 한국산 제품의 품질인식 제고

□ 비관세 장벽

○ 통관/운송 절차 강화 및 외국인 차별정책

- 국내산업 보호, 실업률 감소를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국내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

[대러시아 CIS지역 수출기업 애로사항 사례]

- **<컨테이너 화물의 철도운송에 관한 규정** 제 15조> 교통부 장관령 제30호(8)
  『1포장 단위당 화물무게는 대형 컨테이너의 경우 1,500kg, 중형 컨테이너의 경우 1,000 kg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화물 컨테이너는 화주가 요구되는 화차 및 컨테이너의 적재와 고정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한해 운송이 허용된다...』
- 문제점 : 포장단위당 1,500kg 이상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화차로 환적하기 전에 개봉하여 고정작업 별도 수행 → **과다지정 검사로 수출기업 피해 늘고 있음**
- 해결방안 : 한국내에서 고정작업(lashing)을 수행하여 시간과 비용 절약 가능

2. 러시아 CIS 지역 진출 방안

✓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끈기와 노력 필요
✓ (치킨게임) 다른 국가 철수할 때 오히려 입지를 강화

□ 틈새시장 공략 포인트

○ 진입이 관건

- 최근의 위기는 누가 먼저 투자해서 뿌리 내리는가에 따라 성공이 결정

* 먼저 진출했을 경우 진입장벽은 오히려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음
*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데 전력을 다해야 함
  예) 삼성전자, LG전자의 공격적 투자 vs. 일본기업의 지나친 경계

○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을 기회로 활용

- 디지털, 친환경적 분야 등 잠재가능성 높은 분야 집중 투자 전략

*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CIS 지역의 보호 무역주의 대두
* **축적된 오일머니 활용 및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정책을 적극 활용**
  → 신성장산업 육성

-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한 기회 조성

○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포착

- 경기 침체로 구매 패턴이 충동구매에서 **필요 구매**로 변화

- 지출대비 효과를 중시하는 '가치' 중심의 소비 패턴으로 변화

* 저가의 고품질인 만족 높은 제품 선호
* 대형할인매장 선호

□ 기업 전략

○ 현지 생산체제의 구축으로 생산거점 마련

- 러시아 CIS 지역은 거대한 내수시장이자 대유럽 수출을 위한 생산가공 기지 역할 수행

- 2007년 이전, 운송 ·통관 → 이후 **현지생산, 물류센터, 유통의 원스톱시스템 구축 확대 필요성 증가**

*** 보호무역에 대한 수출애로타개 일환**

[현대자동차 러시아 투자 및 마케팅 사례]

현대자동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건설
→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에 대응 가능
- 공장건설에 약 4억달러 투입, 연간 10만대 양산체제 목표
- 1,600명 가량의 고용창출효과 기대

수입차 관세인상에 대한 현대차 마케팅 방안
- **자동차판매가격 환차손과 관세 인상률을 고려하여 약 10%인상 (고가전략)**
- 수입자동차 업체로는 최초로 러시아 최대 국영 상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금융협약 체결 → 은행대부를 통해 산타페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일정액의 신용지원(이자부담을) 약속
- 무상옵션 제공, 종합보험 가입 혜택
- 2009년 판매 목표치: 21만 7천대 (2008년 19만 2천대 판매 러시아 내 1위, 이는 2007년 14만 7천 843대와 비교해 30% 증가)

○ **한국산 제품 인지도 및 품질인식 제고**

- **역샌드위치 시장(고품질 중저가 상품)**을 집중 조사하여 중국과 일본 제품 대비 경쟁력 확보 노력

- 적극적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기업,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신뢰구축

○ **유통망 진출**

- **영업, 생산, 유통, A/S, 광고마케팅까지 현지입지 강화 필요**

예) 삼성, LG: 타 경쟁업체에 비해 부품공급 기간 60% 이상 단축
→ 러 고객서비스 만족도 7년 연속 상위 유지

◈ **삼성전자, 러시아 국민브랜드로 선정**

- **시장점유율(2008): TV 34%, 휴대폰 25%**
- 나눔 경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 → 신뢰받는 기업
  예)극장, 박물관, 체육관 지원 및 올림픽 위원회 후원, 청년과학자 육성

- 온라인 마케팅 강화

  * 최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 증가 추세

□ 정부 지원 전략

○ 통상 협력 인프라 구축

- FTA 체결, 모스크바주 한국전용공단조성,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정부간 협의채널 구축

  *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책으로 동시 다발적인 FTA추진 필요

- 수출지원 인프라 확대

  * **TAR-TKR-TSR 연결**을 통한 대륙 수송교류 활성화 및 중앙아, 유럽 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

○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수출 투자 진흥

-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 피해예상 품목 사례 및 바이어의 수입선 전환 움직임 포착 및 대응책 마련
  * 무역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조정 프로세스 정립 및 WTO 무역규제조치와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시나리오 수립

□ 산업-기술 협력을 통한 상생(win-win) 추구

○ 산업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이익추구

- 주요 산업 자국 우선정책 외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 발굴(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 러시아 서캄차카 프로젝트 개발권 라이센스 기간 연장
* 가스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단지 건설
* 한국토지공사의 아제르바이잔 행정신도시 구축 사업
* 대한항공의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공항개발 물류구축지원

◈ **나보이 공항개발 물류시설 확충 및 인프라 조성**

- **공사기간: 2010-2013(1단계)**
- 우리기업 수주분 공사금액: 180만 달러
- 진행상황 : 2008년 8월 나보이 국제공항 공동 개발 프로젝트 협약
  2008년 12월 10일 나보이 국제공항 경영계약서 체결

○ **정부 공여자금을 활용한 패키지형 진출**

- 제조업, 전력, 도로, IT 등 주요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공여 등 **금융지원을 통한 수요확대 방안 모색**

* 일본은 타슈켄트 인근 열병합 발전소 건설 비용, 4억 달러중 2억 4천만 달러지원, 아르메니아 발전소 건설에도 관심
* 중국, 우즈베키스탄 유틸리티 분야 차관 제공

○ **'한-러 산업협력 위원회' 활성화**

- 러시아,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 전자, 화학, 의약산업에 관심

* 러시아, 극동지역 기존 항만 현대화 계획에 우리기업의 합작투자 희망
* 화학분야 공동연구를 통해 신약, 신소재 개발 협력추진

- **현재 진행 중인 평판압연강제 반덤핑 조사에서 우리기업의 덤핑 혐의가 없음 전달 → 신뢰구축을 통한 협력 강화**

○ **기술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러시아 원천 기술 도입)**

- 구소련 시절부터 군수기술 발전기반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초과학 중점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 보유

* 100만명 이상의 최고수준 과학기술자 보유, 높은 발전 잠재력

- 한-러 기술협력 접근 전략 포인트

한 국 :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획득 기회
러시아 : 한국의 첨단 생산기술 이전,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공동R&D 투자 및 공동생산 방향으로의 전환

- 러시아기술 국내 이전 촉진을 위한 신기술 공동개발 기금 조성 및 재단 설립, 테크노파크 조성 필요

- 우랄, 시베리아, 극동, 볼가 등 지방정부차원의 협력관계 강화

[한-러 주요 기술 협력 방안]

기술 분야	협력 방안
기계/소재	신제품 공동연구 제작, 우수 러시아 연구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보통신/전자공학	인공지능, 응용수학, 무선통신, 암호화 분야 협력 강화
광학/레이저	센서개발 및 상용화 의료전자와 생명공학 연계, 레이저 기초기술, 반도체용 레이저 커터, 의료용 레이저 기술 협력
에너지	소형 열병합 발전시스템 기술, 에너지 절약형 반응 및 분리공정기술, 태양에너지 기술 협력
원자력	미래형 원자로, 핵기술 분야 대형 국제프로젝트 참여

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09-003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2009.2
09-004	美 경기부양법인 분석 및 활용전략	2009.2
09-005	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	2009.3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2009.2
09-002	중동의 5대 비즈니스 유망 분야	2009.2
09-003	한-호주, 뉴질랜드 BT산업 협력방안	2009.3
09-004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 인증제도	2009.3
09-005	불황기 중국시장, 소비트렌드를 읽어라	2009.3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져보트산업 조사	2009.1
09-004	2009년 지역별 수출유망상품	2009.2
09-005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2009.2
09-006	2009 외국인 투자환경 만족도 조사	2009.3
09-007	러시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2009.3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09-005	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 상담회	2009.2
09-006	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연간계획	2009.2
09-007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9.2

작성자

◈ 모스크바 KBC 장윤성 과장
◈ 블라디보스톡 KBC 박기원 차장
◈ 알마티 KBC 최진형 과장
◈ 바쿠 KBC 한창윤 센터장
◈ 타슈켄트 KBC 이명구 센터장
◈ 노보시비르스크 KBC 채승완 센터장
◈ 키예프 KBC 김하민 과장
◈ 중아CIS팀 이시영

Global Issue Report 09-005

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

발 행 인 ▌ 조환익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9년 3월 10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